

JUVENILE TITLES

FI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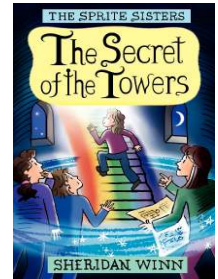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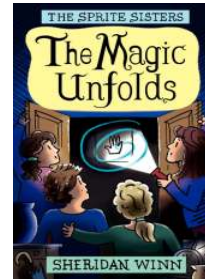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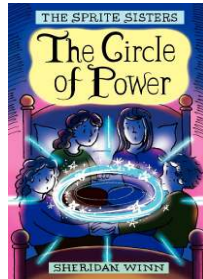
제목 : THE SPRITE SISTERS SERIES

가제 : 스프라이트 자매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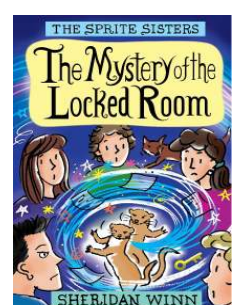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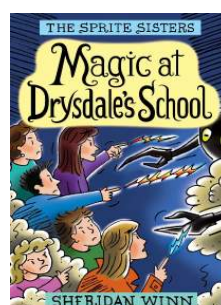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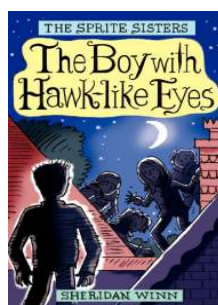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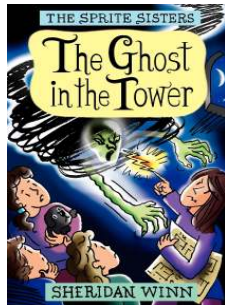
저자 : Sheridan Win

출판사: Sheridan Winn

장르 : YA 소설



영국의 평온한 시골 마을, 노퍽 북부에 거대한 집 한 채가 우뚝 서 있다. ‘스프라이트 타워’라 불리는 이 미스터리한 집에는 엄마아빠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네 자매가 함께 살고 있다. 스프라이트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마법사의 능력, 불·물·지구·공기를 다스리는 강력한 힘을 서서히 깨닫게 된 네 소녀는 온갖 사건들을 겪으면서, 마법을 제어하려면 넷이 반드시 힘을 모아야 한다는 사실을 배워간다. 7세부터 13세 아동을 겨냥하여 10부작으로 완성될 이 시리즈는 현재까지 45만 부 이상 판매됐다.



1권. 마법의 순환(The Circle of Power) / 2012년 7월 20일 / 242 페이지

플레임, 마리나, 애쉬, 아리엘은 스프라이트 타워에 살고 있다. 막내 아리엘이 아홉 살 생일을 맞아 ‘공기’를 지배하는 능력을 갖게 되면서, 네 자매의 마법이 마침내 완성됐다. 넷은 이 특별한 힘을 비밀에 부치기로 하고, 오직 좋은 일에만 쓰자고 다짐한다. 그러나 이미 그 능력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갑자기 찾아오면서 웃음이 끊이지 않던 네 자매의 일상에 먹구름이 깃든다.

2권. 드러난 마법(The Magic Unfolds) / 2012년 10월 4일 / 266 페이지

스프라이트 타워 인근의 토지가 개발 사업 대상으로 확정되면서 스프라이트 자매는 집에서 쫓겨나야 할 위기에 처한다. 급기야 숙적인 글렌다 할머니가 네 자매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기에 이른다. 넷은 무사히 집을 지켜낼 수 있을까?

3권. 타워의 비밀(The Secret of the Towers) / 2012년 10월 16일 / 280 페이지

캠프파이어와 신나게 놀 거리가 가득한 여름이 다가오고, 방학을 맞아 자유를 한껏 누리던 스프라이트 자매는 집 안에 감춰져 있던 비밀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한다. 문을 열면, 그 동안 묶여 있던 마법이 풀려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힘은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

4권. 타워에 숨은 유령(The Ghost in the Tower) / 2012년 10월 22일 / 296 페이지

스프라이트 자매의 숙적 글렌다 할머니의 괴팍한 조상인 마가렛의 유령이 풀려나면서, 스프라이트 타워에는 하루 종일 차가운 공기가 흐르고 열심히 계획한 할로윈 파티도 다 망치게 생겼다. 이 말썽쟁이 유령을 쫓아내야 하지만, 그러려면 무서운 마법의 힘을 빌려야만 한다.

5권. 새로운 마법(New Magic) / 2012년 11월 16일 / 282 페이지

먼 친척인 베레나도 스프리트 가문의 마법 능력을 물려 받고, 네 자매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글렌다 할머니는 이 참에 자매들을 없애버릴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 목숨을 건 싸움이 시작되고 할머니는 흑마법을 휘두르며 플레임, 마리나, 애쉬, 아리엘을 공격한다. 곤경에 빠진 넷이 믿을 사람은 이제 베레나 밖에 없다.

6권. 매의 눈을 가진 소년(The Boy with Hawk-Like Eyes) / 2012년 3월 20일 / 290 페이지

큰 고비를 넘긴 네 자매는 1년 반이 넘게 마법은 제쳐두고 평범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낯선 소년이 스프라이트 타워를 찾아오더니 곤충처럼 생긴 이상한 생명체가 나타나 네 사람을 위협한다. 흑마법이 이미 풀려버린 상황에서, 잊고 있던 마법의 힘을 얼른 일깨워야 한다.

7권. 학교와 마법(Magic at Drysdale's School) / 2013년 6월 21일 / 256 페이지

흑마법을 쓸 줄 아는 잭이 자매가 다니는 학교로 전학을 오고 새 학기가 시작된다. 시도 때도 없이 위협하는 잭을 피하려고 애를 쓰는 와중에 소녀들의 마법 능력에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고 베레나는 애쉬의 능력으로 잭을 흑마법에서 구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8권. 닫힌 방의 미스터리(The Mystery of the Locked Room) / 2014년 12월 24일 / 256 페이지

플레임과 마리나가 각각 연애와 학교 연극에 몰두하는 동안, 애쉬는 유령처럼 사라져버린 쌍둥이에게 이끌려 교장실에서 문이 잠긴 방을 발견한다. 쌍둥이의 정체를 고민하던 자매들은 어딘가 친숙한 모습에 오싹한 기분을 느낀다.

<저자 소개>

셰리단 윈(Sheridan Winn)은 노퍽 지역에서 네 자매 중 첫째로 태어나 동생들과 함께 어울려 놀면서 자랐다. 현재 노리치에 살면서 스프라이트 시리즈를 쓰고 있다.

제목 : JIM MORGAN series
가제 : 짐 모건 시리즈
저자 : James Matlack Raney
출판사: Dreamfarer Press
장르 : YA 소설



풍족한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 편안하게 살던 짐 모건. 아버지가 사악한 무리의 손에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자 아버지를 죽인 적들로부터 스스로 목숨도 지키고, 숨겨진 고대 보물도 찾아야 하는 운명에 처한다. 19세기 런던을 배경으로 정체 모를 적들과 신비한 동물들, 마법이 가득한 모험이 펼쳐진다.

1권. 짐 모건과 도적떼의 우두머리(JIM MORGAN AND THE KING OF THIEVES)

- 2012년 9월 28일 / 292 페이지

짐은 어릴 때부터 이모 손에 크면서 버릇없는 아이로 자랐다. 엄마는 아기일 때 세상을 떠났고 유명한 해군인 아버지는 거의 바다에 나가 사는 분이라 얼굴 보기도 힘들었다. 이모는 제멋대로 날뛰며 하인들을 괴롭히는 짐을 그냥 방치했다. 책이라고 한 장도 읽지 않는데도 짐이 공부를 하건 말건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짐이 열한 살이 된 어느 날, 아버지가 오랜만에 집에 돌아오면서 짐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집에 도착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살해당하고 만 것이다.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짐은 살인자들로부터 쫓기는 신세가 된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맨몸으로 정신 없이 도망을 친 짐이 도착한 곳은 런던 한복판. 도망치던 와중에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나무 상자를 훔쳐간 도적떼를 쫓아 우두머리를 힘들게 찾아냈지만, 그가 상자를 순순히 내놓을 리 없었다. 결국 짐은 상자를 훔치기로 결심한다. 쾌활하고 에너지 넘치는 라트 형제가 거뒀준 덕분에 겨우 지낼 곳을 찾은 짐은 두 형제에게 소매치기 기술을 전수 받기 시작한다. 해적과 사람처럼 말하는 새, 런던 지하세계를 주름 잡는 소매치기와 도둑들 사이에 내던져진 짐은 친구 하나 없고 세상물정 모르는 철부지 소년에서 스스로를 책임질 줄 아는 사람으로 조금씩 성장해간다.

2권. 짐 모건과 까만 해골의 해적들(JIM MORGAN AND THE KING OF THIEVES)

- 2013년 11월 22일 / 340 페이지

도적떼 우두머리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아버지가 남긴 상자를 되찾은 뒤로 1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제 안정을 찾은 짐은 새로 사귀 친구 레이시, 라트 형제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모건 가문의 대저택을 되찾기로 결심한다. 출발 전, 짐은 새카만 해골이 등장하는 불길한 꿈을 꾸는데 그 좋지 않은 예감은 현실이 되고 말았다. 아버지의 오랜 숙적인 크로미어 백작과 백작의 아들

바틀로유가 모건 대저택을 파괴해버린 것이다. 심지어 아버지가 짐에게 물려준 보물 지도까지 훔쳐가는 뻔뻔스러운 짓까지 저질렀다. 참지 못한 짐은 양갈음을 하고 빼앗긴 지도를 되찾을 방법을 고민한다. 그 지도에 표시된 섬에는 엄청난 힘을 가진 삼지창이 묻혀 있고, 크로미어 부자가 찾아내기 전에 짐과 친구들이 먼저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도착해야만 한다. 그러나 보물이 있는 섬으로 가는 길목에는 거대한 괴물들이 기다리고, 인어와 크라켄과의 싸움에서도 이겨야 한다. 눈 하나를 안대로 가리고 해적들 말투로 이야기하는 짐의 친구 맥구피, 소름 끼치게 무서운 외모로 '사람의 살'이 먹고 싶다고 울부짖는 새와 인간의 혼합체 하피 등 호기심을 자극하는 괴상한 캐릭터들과 반전이 가득한 스토리는 읽는 내내 긴장을 놓을 수 없게 만든다.

3권. 짐 모건과 세상의 끝에서 만난 문(JIM MORGAN AND THE DOOR AT THE EDGE OF THE WORLD)

- 2014년 10월 27일 / 396 페이지

짐과 레이시, 라트 형제는 크로미어 백작과 그의 아들 바틀로유가 바다의 보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느라 녹초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보물을 향해 끈질기게 접근해온 두 사람은 결국 보물이 숨겨진 위치를 바로 근처까지 알아낸다. 설상가상으로 다 없어진 줄만 알았던 과거의 적들도 더욱 사악한 계획을 품고 짐 앞에 나타난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 가까워오는 가운데, 짐과 친구들은 바닷속 인어들의 왕국을 벗어나 새로운 동맹을 맺고 점점 더 사악해져만 가는 이 악당들로부터 보물을, 그리고 목숨을 지켜야 한다. 짐은 자신이 바다의 보물을 완전히 소유해야 이고된 전쟁도 끝이 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려면 세상의 끝, 그곳에 우뚝 서 있는 문을 열어야 하는데, 그 전에 목숨을 건 시험부터 통과해야만 한다. 짐이 치러야 하는 시험이 어떤 것인지, 그로 인해 짐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저자 소개>

제임스 레이니(James Raney)는 어린 시절을 유럽, 남미, 아프리카 곳곳에서 보낸 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오랫동안 살았다. 지금은 캘리포니아 남부에 살면서 모험 소설을 쓰고 있다.